

박미경

일러스트레이션 학교 힐스(HILLS)에서 공부했습니다.

쓰고 그린 첫 그림책은 《도로시는 노랑》이고,

《우리, 친구할까》《용감한 하준이의 세균 물리치기》에 그림을 그렸습니다.

또 올 어?

박미경 그림책

또 올어?

© 박미경, 2024

초판 1쇄 발행일 · 2024년 9월 5일

글 그림 · 박미경 | 펴낸이 · 윤은숙 | 편집 · 이선영 | 디자인 · 윤미정

펴낸 곳 · (주)누리보 | 등록일자 · 1997년 4월 17일 | 등록번호 · 제10-1432호 | 주소 · 경기도 파주시 헤이리마을길 48-45

전화 · (031)949-8761 | 팩스 · (031)949-8762

블로그 · blog.naver.com/nurimbo_pub | 인스타그램 · @nurimbo_pub

ISBN · 978-89-5876-256-0 77810

- 이 책의 글과 그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(주)누리보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
- 책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.
- KC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합니다.

누리
보



왜 툇하면 눈물이 나지?



엄마 아빠랑 영화를 보다가
무서워서 엉엉 울었어.

왜 우는지 까먹을 때도 있어.
한참 울다 보면.....





선생님이 내 등을 토닥토닥.
친구들은 커다랗게 웃어.
“우리 여기서 수영하자.”



난 울보야.
나도 알아.

아기 때는 울자마자
엄마가 달려왔어.





엄마가 안아주면 눈물이 뚝!



깔깔 웃다가 찢끔 눈물이 날 때도 있어.
근데 그게 그렇게 이상해?
코끼리는 푸하하 웃다가 방귀도 뽕뽕 뀌는데!



내가 코만 훔적어도 우는 줄 알더라.
그거 그냥 감기 걸린 거야.



근데 내가 올 때마다 왜 뺨히 쳐다봐?
좀 모르는 척해주면 안 돼?



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 때
입술이 딱 붙고 눈앞이 뿌예져.
난 왜 그럴까?





친구들이 손뼉 치면서 응원해 줄 때도 울컥.

A painting of a sunset or sunrise over a landscape. The sky is filled with warm, golden-yellow and orange hues, with soft, wispy clouds. A single bird is captured in flight in the upper right quadrant. The foreground shows a field of tall grasses in shades of yellow and green, with a small body of water reflecting the sky's colors. The overall mood is serene and contemplative.

저녁노을을 바라보다가도 눈물이 피잉.



또 운다고 놀리고 싶니?
울보라고 놀리고 싶어?



뭐?
그게 아니라고?
나처럼 너도 툭하면 운다고?
진짜, 진짜야?



맘껏 울고 나면,
한바탕 소나기 쏟아진 뒤
이건 우리만

답답했던 마음이 땀 뚫려.
엄청나게 시원해지는 것처럼.
아는 비밀!

